#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첫 女총리 됐다…새 내각 출범

'강경보수' 유신회와 새 연정 수립…중의원 1차투표서 과반 득표 소수여당 체제 국정 운영 순탄치 않을 듯…한일관계 파장 주목

일본 집권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사진) 총 재가 21일 총리로 선출됐다고 교도통신 등이 보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이날 오후 개회한 임시 국회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진행된 총리 지 명선거 1차 투표에서 465표 중 과반(233표)을 웃 돈 237표를 얻었다. 총리 지명선거는 참의원(상 원)에서도 별도로 실시되지만, 결과가 다를 경 우 중의원 투표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직에 오른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이 1885년 내각제를 도 입해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총리를 맡은 이후 제104대 총리이자 사상 첫 여성 총리다.

그는 이날 나루히토 일왕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새 내각을 정식으로 출범시킨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에 기하라 미노루 전 방위상, 외무상에 모테기 도 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을 기용할 방침이다. 자민당 총재 선거 경쟁자였던 고이즈미 신지로, 하야시 요시마사 의원은 각각 방위상, 총무상으 로 발탁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10선 의원으로 경제 안보담당상, 총무상,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 을 지냈다. 일본 정계에서는 드문 비세습 여성 정치인으로 '유리 천장'을 깨며 강경 보수 성향 정치인으로 입지를 다져 왔다.

그는 지난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며 당권을 잡았으나, 1999년부터 자민당과 협력해 온 중도 보수 성향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해 위기 를 맞았다.하지만 강경 보수 성향 제2야당인 일본 유신회를 새로운 연정 상대로 끌어들이는 데 성 공해 우여곡절 끝에 총리직에 올랐다.



다만 다카이치 내각의 국 정 운영이 순탄치는 않을 것 으로 전망된다.

일단 유신회는 자당 의원 이 입각하지 않는 이른바 '각 외(閣外) 협력'형태로 연정

에 참여하기로 해 공명당 의원이 국토교통상 등 을 맡았던 기존 자민당·공명당 연정보다는 협 력 관계가 약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 다카이치 총리가 유신회를 포섭하는 과정 에서 국회의원 정수 10% 축소 등 유신회 요구 사항을 대부분 수용했는데, 일부 사안에 대해서 는 자민당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민당과 유신회 사이 에 국회의원 정수 축소, 기업·단체 후원금 폐지, 선거 출마자 조율, 약한 연결고리 등 4가지 갈등 의 불씨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의 연정 상대가 보수 정 책에 제동을 걸었던 공명당에서 개헌과 방위력 강화 등을 바라는 유신회로 바뀌면서 다카이치 내각의 보수색이 한층 선명해졌다고 해설했다.

그러나 자민당과 유신회는 의석수를 합쳐도 과 반이되지않는소수여당이어서법안과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다른정당과협력이필요하다.

중의원의 경우 자민당 196석, 유신회 35석으 로 과반인 233석에 2석 모자란다. 참의원 의석수 는 자민당 101석, 유신회 19석이다. 과반인 125석 에는 5석 부족하다.

다카이치 내각 출범으로 역사 인식이 온건하 다고 평가받았던 이시바 시게루 내각 체제에서 협력 기조가 이어졌던 한일관계에 파장이 미칠 지도 주목된다. /연합뉴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LA 올림픽가에서 열린 사물놀이 공연 퍼레이드.

/연합뉴스

## 美 한류 열풍 속 'LA한인축제' 역대 최다 30만명 방문

#### '농수산 엑스포' 韓 식품·문화 체험 인기

미국에서 뜨거운 한류 열풍을 타고 한인사회 최대 행사인 로스앤젤레스(LA)한인축제에 역 대 가장 많은 30만명이 다녀갔다고 LA한인축 제재단측이 20일(현지시간) 밝혔다.

'경계선을 넘어서 (Beyond Boundaries)'라는 주제로 지난 16-19일 나흘간 LA 시내 서울국제 공원에서 열린 제52회 한인축제에는 LA소방국 추산 총 30만명이 방문해 역대 최대 인파를 기

올해 축제는 특히 K팝과 K-푸드, K-드라마 등이 이끈 한류 열풍 속에 다양한 인종과 세대 가 참여해 한국 문화를 함께 즐겼다.

전시 부스 참가 규모도 292개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한국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행사로 자리잡은 '농수산 엑스포'에는 경상남・ 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경기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와 180여개 기업이 참여해 한국 본연의 맛을 알렸다.

또 한국산 화장품과 건강식품, 전자제품 등 다 양한 품목이 소개돼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LA한국교육원,

종이접기사단법인등에서운영한체험부스도준 비된 재료가 조기에 소진될 만큼 인기를 끌었다. 거북선 모형과 제주도 돌하루방 모형, 서울 표 시판 등 전시물은 '포토존'으로 자리매김하며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아울러 축제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한 경비와 안전 관리가 이뤄져 무사고 행사로 마무리됐다 고 재단 측은 전했다. 현장에는 자원봉사자 250 명이 참여해 원활한 운영을 도왔다.

알렉스 차 LA한인축제재단 회장은 "올해 축 제는 한인사회의 열정과 연대가 만들어낸 결 과"라며 "내년에도 모든 세대와 커뮤니티가 함 께 즐길 수 있는 더욱 풍성한 축제를 준비하겠 다"고 말했다.

차기 제53회 LA한인축제는 내년 10월1일부 터 4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차 회장은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글로벌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머스크 스페이스X 달착륙선 지연···美장관 "계약 철회" 시사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미국의 인류 달 착륙 계획에 쓰일 우주선 개발에 속도 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 교통부 장관이 스페이스X와의 계약을 철회할 가능성을 시사 했다고 CNBC 방송이 20일 (현지시간) 전했다.

인터뷰에서 NASA의 달 착륙 계획 '아르테미 스'와 관련해 "우리는 한 기업만을 기다리지 않까지는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을 것"이라며 "이것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여 중 고말했다.

더피 장관이 언급한 "한 기업"은 스페이스 X를 지칭한다. 스페이스X는 2021년 NASA와 계약을 맺고 아르테미스 3단계 임무에서 우주 비행사들을 달에 착륙시킬 우주선을 만들기 로 했다.

미 항공우주국(NASA) 임시국장을 겸하고 하지만 머스크와 스페이스X가 인류의 화성 있는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이날 CNBC 방송 이주를 주요 목표로 하는 '스타십'이란 이름의 초대형 우주선으로 개발하면서 이를 완료하기

이에 따라 NASA가 2027년 수행을 계획 중인 국과의 두 번째 우주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라 아르테미스 3단계 임무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美애틀랜타 공항 총기난사 예고범 체포

#### SNS 라이브…신고한 가족 덕에 참사 면해

주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하마터면 끔찍한 총 기 난사 사건이 벌어질 뻔했다.

잭슨 공항에서 총기 난사를 하려 한 혐의로 빌 리조케이글(49)을 긴급체포했다고 미 CNN과 AP통신이 보도했다.

조지아주 카터스빌에 거주하는 케이글은 체 포 당시 총기를 소지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공 전 세계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미국 조지아 항 밖에 주차된 그의 픽업트럭에서 'AR-15' 반 자동 소총을 발견했다.

이 소총은 미국 내 발생하는 총기 난사 사건 애틀랜타 경찰은 20일(현지시간) 하츠필드 에서 거의 빠짐없이 등장해 '악마의 무기'로 해 "반자동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정신적으 불린다.

다린 쉬어바움 애틀랜타 경찰청장은 이날 기 자회견에서 케이글 가족의 신고 덕분에 총기 난 말했다.

사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케이글은 이날 공항으로 차를 몰고 가면서 소 셜미디어(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공항에 가 서 사람들을 총으로 쏴버리겠다고 예고했다.

케이글의 가족은 이 방송을 보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다. 가족은 케이글이 반자동 소총을 소지 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렸다.

안드레 디킨스 애틀랜타 시장은 케이글에 대 로도 문제가 있는 상태였다"며 "이 두 가지가 결합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연합뉴스





## **남도밥상**을 지키는 사람들

**잊혀져 가는 남도음식의 맛과 멋을 총망라!** 남도음식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기폭제 마련!

남도는 맛의 고장이다. 기름진 땅과 맑은 물에서 고운 햇살을 받으며 자란 청정 농수산물과 넉넉한 인심으로 맛깔스런 맛을 낸다. 이런 남도 음식중에서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향토음식을 엄선해 그 가치와 비법 등을 소개했다. 남도 음식의 새로운 진면목은 물론 산업화·세계화를 기대하면서~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

**입금계좌** 광주은행(016-107-323257:예금주 - (주)광주매스컴)

정 가 20,000원



















